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북한의 인권실상을 고발합니다



목차

1.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정치범수용소.....4
2. 생명의 존엄성 유린 공개처형.....6
3. '餓死 살인'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8
4. 정권 유지를 위한 거미줄식 통제체계 기본권 유린.....12
5. 평등을 기정한 불평등의 극치.....13
6. 천국의 국경을 넘어 짓밟힌 칼북자들의 삶.....14
7.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억류게임'.....19

책을 내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되새기고 싶지 않은 과거와
그럼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와
아무런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

- 2009년 6월 피랍·탈북 인권연대 -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장진성 (탈북서인)

그는 초췌했다
-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서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병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母性)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 작가가 북한의 어느 시장에서 목격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1.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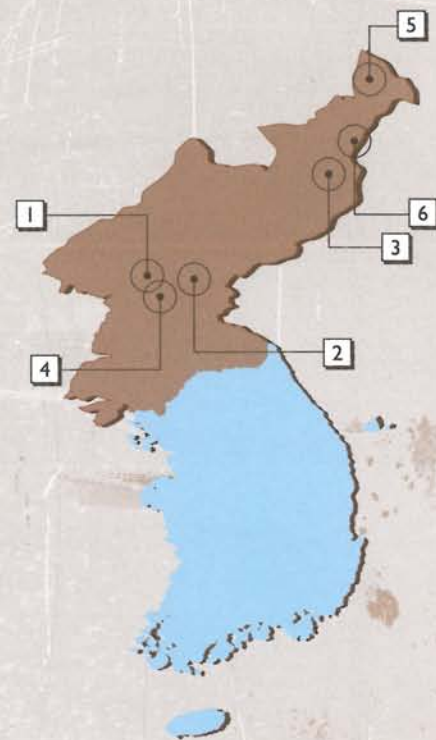
정치범수용소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영상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는 현재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안에는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감금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고문과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치범이란 대체 어떤 중범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북한 형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59~72조)를 살펴보면,

- √ 반김정일 및 반사회주의 세력
- √ 수령과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자

등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을 제외한 그 어느 곳에서도 범죄자라고 불릴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감되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한 재판절차도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체제불만을 덮기 위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연대 처벌하는 반인권적 연좌제마저 시행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러면 이웃들은 대개 수용소에 끌려 갔겠거니 추측한다. 친척들도 행방을 상세히 알아보려 할 경우 돌아올 화가 두려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 | | |
|---------------|---------------|
| ① 14호 평안남도 개천 | ④ 18호 평안남도 북창 |
| ② 15호 함경남도 요덕 | ⑤ 22호 함경북도 회령 |
| ③ 16호 함경북도 화성 | ⑥ 25호 함경북도 청진 |

15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김영순 (요덕군 제 15호 수용소 경험자, 03년 입국)

15호 수용소 수감자들 중에는 "김일성의 목에 흑이 났다"는 말을 한 사람, 김일성 석고상을 깬 사람, 김일성 초상이 있는 신문으로 장판을 바른 사람, 외국 비디오를 보거나 이웃에게 돌린 사람 등 정말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생각할 수도 없는 죄명으로 8년, 10년 또는 그곳에서 영영 죽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출처 : 북한인권시민연합)

노예 같은 수용소 생활

수감된 정치범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서신연락 등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해 3~4m 높이로 이중삼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망루에는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정치범들은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턱없이 부족한 식사량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수감중 영양실조와 폐렴·결핵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15호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요덕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김광수 (46세, 요덕군 제 15호 수용소 경험자, 04년 입국)

수용소에서는 때리지 않고도 수감자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굶겨서 사람을 죽인다. 누구를 죽이려면 일을 하기 힘든 밭에 보내서 김을 매는 일 등 어려운 일을 시켜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배급을 주지 않는다. 배급량이 줄어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힘든 일을 계속하니 힘이 계속 떨어져서 체력저하로 죽는 경우가 많다. 보통, 보름을 못가서 죽는다. 그 것은 허약으로 죽은 것이지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철저한 약육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요덕 수용소다.

(출처: 북한인권시민연합)



(그림: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안명철)

정치범 수용소내에서는 쥐고기가 유일한肉食이라고 한다 (출처: 데일리NK)



애자가 부착된 전기 철조망과 초소

수용소内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만행들

산불을 끄기 위해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경우,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되었다가 깔려죽는 경우, 경비견들에게 잡아 먹히는 경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들이 이곳에서 벌어진다. 지난 2004년 영국 BBC 방송은 한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 생체실험'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요덕 수용소 경비병과 수감자들 모습

한편, 김용·안명철 등 수용소 경비병 출신 탈북자들은 “매달 3~4차례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을 살다 탈출한 신동혁도 “어머니와 형이 96년 반역죄로 공개처형 당했고 자신은 강제로 지켜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있던 ‘14호 개천 수용소’의 경우 “도주 즉시 총살한다. 지시에 불복종한 자는 총살한다” 등의 10대 규정이 있다며 보위부원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했다.

“단지 우리는 그곳에서 관리소의 규정을 지키고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

(탈북자 신동혁의 수기 '세상 밖으로 나오다' 중)

철저히 짓밟히는 수용소내 여성 인권

한편, 수용소내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탈북자들은 “간수들이 왕처럼 여성 수감자들을 수시로 불러 강간과 강제 추행을 일삼는 등 성 노리개로 삼았다”고 증언한다. 또한 ‘정치범들의 씨를 말려야한다’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총살형에 처하는 중죄로 규정하고 산모는 물론 영아살해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탈북자 안명철은 “한 여자 수감자가 경비대 부소대장과의 관계로 아기를 낳자, 아기는 개에게 던져주고 여 수감자는 성기와 배에 막대기를 꽂아 살해했다”고 전한다.

일반인·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

무엇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참상이 단지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범법자들을 수용하는 교화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과 경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집결소와 노동단련대 등 북한 도처의 구금시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림 :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안명철) 고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모습 (출처 : 데일리NK)

2. 생명의 존엄성 유린 공개처형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공개처형

지난 2005년 日「N-TV」와 美「CNN」등 해외 유력 방송들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집행된 북한의 공개총살 동영상을 보도, 그동안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공개처형의 실체를 확인했다.



美 CNN, 05.11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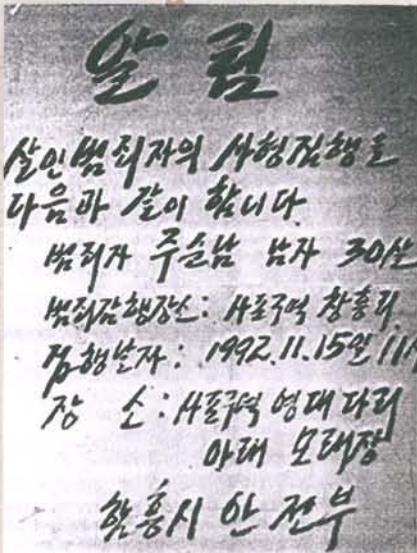
日 N-TV, 05.3 보도

일반적으로 북한의 공개처형은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된다. 대부분 총살형이 실시되며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군중 앞에서 죄명을 공개하고 처형에 처하기까지 통상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를 택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 ▶ 사람들을 강제로 모아 사형집행을 지켜보게 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 ▶ 한 명의 사형수에게 9발 이상의 총알을 퍼붓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 ▶ 사형집행 후 시체를 유기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공개재판 참석을 지시하고, 잔인한 총살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는 것은 또다른 학대이자 인권유린이다. 3명의 사격수가 각 3발씩 머리·가슴·배 총 9발의 총알을 난사하는 잔인한 공개처형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잔혹하다. 시체를 포대에 담아 인근 야산이나 들판에 묻어버리며 망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공개처형을 알리는 포고문
(출처: 북한인권시민연합)

공포정치로 체제 이완 차단

사실 북한의 공개처형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보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식량난 심화·탈북자 급증·외국 영상물 범람 등으로 체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제 일탈세력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한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평소 공개처형을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 교양형식'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금도 치가 떨리는 북한의 공개처형

김민정 (97년 입국)

(중략) 며칠후 직장 당 조직에서는 오봉산 밑에서 공개처형이 있으니 직장내 모든 사람들은 00시까지 직장앞으로 모이려 했다. 가슴이 섬뜩했다. 조직적으로 가는 것이어서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중략)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형수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다. 너무도 끔찍하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설마하여 발 뒤꿈치를 들어 앞줄 가운데를 내다보니 정말 가족들이 머리를 깊이 숙인채 앉아있는 것이었다. 아마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략) 세 번째 총소리가 울렸다. 머리에서 피가 팔팔 흘러내렸다. 시체는 무거운 자루처럼 땅바닥에 깔려있던 거적매기에 떨어졌다. 안전원들은 시체를 돌돌 말아 트럭에 싣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출처: 북한인권시민연합

3. '餓死 살인'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의 식량수급 실패와 부족

북한의 식량문제는 1995년~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약 300만명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은 90년대 이후 나아지다가 2006년~2007년 대홍수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870만명이 수개월안에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기아 상태의 북한 어린이

북한 식량난은 김정일 정권에 의한 '人災'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식량의 절대적 부족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식량수급 조절 실패·선군정치 등 김정일 정권에 의한 '人災'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외부의 식량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만성적 식량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식량문제 해결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외부지원을 받음으로써 식량 수입을 줄이고 절약한 외화를 무기 구입 등에 전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9년 식량수입을 줄여서 남긴 외화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40대의 미그 21기와 헬리콥터 8대를 구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軍에 식량을 우선 배급한다. 한 북한군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유엔조사원의 시찰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 창고에 쌀을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시찰이 끝난 후에 다시 군부대로 옮겼다고 증언한다. 군부대 차량들이 민간인 차량번호로 바꾸고 사복을 입고 항구에 와서 직접 쌀을 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북한군이 대북지원 쌀포대를 군부대로 나르는 모습

‘1순위 계급’은 굵지 않는다

무엇보다 식량 배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급순위에 따른 식량 배분체계에 있다.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대, 군수산업 등 체제보위세력을 우선시한다.

차등적 식량 분배정책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일반 주민들이 남한에서 식량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식량을 수령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배급 순위	대상자
1순위	당·정 기관공무원, 군부
2순위	보위부·보안성·사법검찰부문
3순위	제2경제위원회 산하공장·기업소
4순위	일반 기업소·교원·서비스직 노동자

정치적 이유로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09년 3월 식량 지원 최대 공여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에 상주하면서 활동해온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NGO 구호단체들에게도 철수를 요구했다. 무력도발을 앞두고 미국의 제재카드를 무력화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식량 배급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여러 가지 분석이 따른다. 하지만 이윤야 어쨌든 간에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도외시하면서 단지 김정일 기분 내키는 대로 주민들을 굶어 죽였다 살렸다 하는 정권이 어디 있는가?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김정일의 ‘아방궁 생활’, 그리고 ‘미사일 쇼’

09년 4월 일본의 지지 통신은 유럽 금융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럽 주재 북한 당국자가 총 2천만불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호화요트 2척 구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도 김정일은 자신의 안위와 향락을 위한 호화 사치행태를 일삼고 있다.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가 대북 금수품목으로 규정한 고가의 차량(벤츠600 등)을 지속적으로 수입

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만 500여대이며,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 온 최고급 요리재료와 인도의 거북이 알·양골라 해역의 상어 간 등 진귀한 정력제를 호사롭게 즐긴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소위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기를 만들고 사들인다. 북한이 09년 4월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장거리로켓 개발·발사에 약 5~6억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금액이면 북한 취약계층 주민 600만명이 1년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옥수수 280만 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분수에 맞지도 않은 미사일 쇼를 연일 벌이고 있다. 이렇듯 북한 주민들은 단순히 굶어죽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의해 철저히 「餓死 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별장



'김정일 요트'로 알려진 이탈리아 아지무트社 요트 내부(출처:중앙일보)

김정일이 즐겨 먹는 음식 Best 5

순위	이름	설명	
1	야자상어날개탕	야자열매 속을 파고 상어 지느러미 수프로 속을 채운 것. 김정일이 가장 즐기는 요리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상어날개 요리를 '삭스핀'으로 부른다.	
2	죽생상어날개탕	죽상어 지느러미를 수프로 만든 것.	
3	상어날개소라탕	날개와 소라를 수프로 만든 것.	
4	대군상어날개홍소	상어 날개 요리 일종, 국내에서 확인 불가능	
5	도비꼬새우땀뿌라	날치알과 새우를 기름에 튀긴 요리	

(출처: 데일리 NK) 데일리 NK는 김정일의 개인 요리사를 지낸 후지모토 겐지의 '김정일의 요리사', 폴리코프스키가 쓴 '동방특급열차'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밥

장진성 (탈북시인)

우리는
쌀을 잇은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의 밥은
나무다
껍질이다

우리의 밥은
산에서 자란다
바위를 헤치고 자라서
먹기엔 너무도 아프다
그래도 먹어야만 하기에

두꺼운 나무껍질
슬픔이 끓는 물에 삶아내어
꺼내선 죽도록 망치로 때리고
또 끓이고 또 때리고
그래도 목을 죄는 밧줄 같아
마지막엔 양젓물을 섞으면
마침내 반죽되는 나무껍질

그것도 밥이라고
그릇에 담기라고
우리는 밥을 빚는다
한 줌 속에 나무를 빚는다

오 그러면
그 몇 덩이
우리의 눈물덩인가
볼수록 짝 메는 목구멍

그 몇 덩이도 없어
그런 밥도 없어
먹고사는 전세계 목숨들이여
이 나라엔 산이 모두 벗겨지고도
그러고도 나무가 모자라 수백만이 굶어죽었다



※ 탈북시인인 작가가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입니다.

4. 정권 유지를 위한 거미줄식 통제체계

기본권 유린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북한주민의 사생활은 사회 요소요소에 그물망처럼 쳐놓은 당국감시망에 의해 철저히 통제당한다. 당원은 당조직에, 청년은 청년조직에, 노동자는 직장에, 농민은 농근맹에, 여성은 여맹에, 아동은 소년단에,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에서 일관하는 사회단체들에 얽매어 있다. 김정일이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 원인을 관료 부패·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지식 청년층의 이탈로 지적하고 내부단속을 위한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성 등 많은 감시 조직이 있지만 그 최일선에는 20~4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이라는 조직이 있다. "북한의 외형은 군대가 지탱하지만 내부는 인민반장이 지킨다"는 인민반장 출신 탈북자 김영순의 증언도 있듯이, 인민반장은 매일 아침 동사무소에 들러 상부에 주민 동태를 보고한다. 또한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金父子 초상화·도서 검열 등을 하며 가정 사정을 감시·통제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자 인민반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인민반장

김영순 (함흥시 동흥산구역 인민반장 출신 탈북자)

북한에서 변변한 데모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쳐져있는 감시망 때문인데 인민반장이 그 감시망의 1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눈과 귀의 구실을 한다.

인민반장은 행정체계상 최하부 말단 조직의 책임자에 불과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이웃 인민반에선 한 북송 교포가 밤마다 라디오를 듣다가 인민반장의 신고로 산간오지로 추방된 일도 있다.

물론 인민반장을 감시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인민반장이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엉터리 보고를 했다가는 금방 탄로가 난다.

(출처 : 조선일보)

거주 이전과 여행자유 의 제한

북한은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98년 헌법에 '거주, 여행의 자유'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이동의 자유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히 평양과 국경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특수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여행은 당연히 철저히 통제된다. 또한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도 없다. 특히 거주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 할 수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세력을 오지

의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등으로 강제 이주 시킨다. 이렇게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셈이다.

철저한 정보 통제

또한 북한은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하고 외부의 실상이 북한 내부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라디오 청취, TV 시청, 영상물 시청, 외국 서적과 외국신문 열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외부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감시 조직을 동원하여 철저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남한 등 외국 비디오표를 시청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중국 기지국의 전파가 미치는 북한 국경지역에서 중국 핸드폰을 이용하여 중국과 남한 내 가족과 연락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북한당국은 핸드폰 사용을 '반공화국 책동'으로 규정하고 탐지기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보내 처벌하고 있다.

5. 평등을 기망한 불평등의 극치

3계층 45성분 분류와 신분세습

북한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면서 '무계급 무착취'의 사회를 표방하고 '분배정의의 실현'을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과연 평등한 나라인가? 오히려 차별적 지위와 대우가 규격화되고 심화된 사회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을 수차례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통해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활동 등을 기준으로 3계층 45개 부류로 세분화 하고 있다.

3계층	차별 내용	인구비율
핵심계층	당·정·군 간부 등용, 진학, 승진, 배급, 주거, 진료 등에서 특혜	20%
기본계층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60~70%
복잡계층	유해·중노동에 종사, 제재·감시·포섭대상으로 분류	10~20%

이러한 차별제도는 입당·직장배치·대학 진학 등 개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엄청난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이 진짜 공산주의, 북한은 가짜?

조갑제닷컴

▶ **평등** 한국에선 남로당 출신도, 남로당원 사위도, 그리고 상인도 대통령이 된다. 북한에선 김일성과 그 아들만 代를 이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선 입학, 입사에서 어떤 신분 차별도 없다. 북한에선 입사, 입학의 자유가 없다.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 북한이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한국이다.

▶ **계급혁명** 한국에선 석공 출신도 세계적 기업을 만들고, 농민의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계급적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에선 노동당원과 군인이라야 대기근때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북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계급이다. 한국에선 계급혁명이 이뤄졌고, 북한에선 계급餓死가 이뤄졌다.

6. 천국의 국경을 넘다

짓밟힌 탈북자들의 삶

탈북자 규모 및 실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 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문가별로 다르나 대개 3만~10만명의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 이야기를 그린 영화 크로싱 中



탈북 = 자유? : 한국 입국까지의 험난한 여정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처음으로 가는 나라는 접경지역인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에 따른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찾아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의 체포를 피해 숨어 지내며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중국을 떠나 러시아와 CIS지역, 몽골, 동남아 지역 등으로 이동을 시도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몽골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한 주요 경유지가 되었다.



탈북자 시신, 중국 투먼 두만강변

험난한 중국 탈출길

조선일보 08.3.15字

탈북에 성공해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4가지다. 중국에서 태국, 중국에서 라오스, 중국에서 몽고,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는 방법이 그것이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제 3국을 거쳐 태국 혹은 라오스로 간다. 결국 2번의 밀입국을 해야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만난 한 길 안내자는 “태국, 캄보디아 길도 조만간 막힐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탈출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탈북자는 중국 현지인들을 통해 제3국 국경까지 길 안내를 받는다. 제 3국에서는 미리 섭외한 현지인의 길 안내를 받는다. 다시 태국, 라오스에선 다른 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과정을 겪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실수가 생기면 복송되거나 국경 경비군인의 총탄에 희생되기도 한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고문·처벌 실례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행위를 당한다. 난민·이민위원회(USCRI)자료에 따르면 포승·족쇄에 끌려가 송환되는 탈북자가 한 해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송환 경험 탈북자들의 절반 이상이 쇠사슬·각목 등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방치하여 온몸의 근육을 굳게 하는「비둘기 고문」,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고 구타를 하는「비행기 고문」등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고문들이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관련 기자회견시 북한 수용소에서의 고문 상처를 보여주는 방미선씨

내가 겪은 북한 감옥생활

이민복 (북한 과학원 농업연구원)

나는 평시 감옥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은 고문말고는 또 없는 줄로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정치보위부 집결소에서 여지없이 깨어졌다. 사형 그 자체 보다 사형당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듯이, 고문이라는 일정한 순간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최소한 6개월 걸리는 수감기간 중 줄곧 돌부처처럼 꼼짝 못하게 정좌로 앉혀 놓는 일이다. 정좌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머리는 벽을 45도 각도로 바라보게 하고, 말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다. 또 누울 수도 없고 팔,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다. 앉는 것이 편안한 줄로만 알았던 나의 상식은 이렇게 깨어져 나갔다.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을 갑자기 장기간 정좌시켜 놓으니 온몸이 쭈시며, 특히 관절 마디마디는 쭈시다 못해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중략) 움직인 데 대한 처벌은 감옥에 처음 들어 온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 감옥 맛을 처음부터 톡톡히 보여 준다는 것이다. 처벌 방법은 정좌보다 더 가혹한 무릎꿇고 팔을 높이 들고 몇십분간 있게 하는 일이다. 무릎 아픔을 참느라고, 또 천근같은 팔을 들고 있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떨다가 마침내 쓰러지곤 한다. 이렇게 되면 반복 동작시키며, 또 철창 밖에 손 내밀게 하고 손등을 쇠꼬챙이로 때리기도 한다. 황해도 신계 출신의 한 수인은 두 손을 수갑으로 철창에 고정당한 채 너무 많이 맞아 골병든 사람처럼 돼버렸다.

(출처 : 북한자유연합)

강제송환 탈북여성들의 성적유린 실상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의 여수감자들과 같이 집결소내에서 성추행·강간 등 성적 유린을 당한다. 비밀편지·문건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나체 몸수색을 하면서 '자궁 검사'나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고문'을 가하기도 한다. 영아살해와 강제낙태 사례도 부지기수다. '한족의 씨'라고 하며 산모가 지켜보는 앞에서 영아를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키거나, 비닐에 싸서 살인하는가 하면, 주사기로 소독약을 임신부의 자궁내에 주입시켜 강제유산 시키는 등 탈북자들의 온갖 끔찍한 목격담들이 이어진다.

“한족한테 시집간 여자가 있는데 몸을 안준다고 옷을 벗겨놓고 몸을 푹푹 묶어 때렸다. 애 낳은지 10일 지난 아내에게 몸을 요구하다가 거부하니까 때리는 경우도 봤다. 대부분 맞고 사는데, 맞는 고통이 없으면 정신적 고통이 크다. 북한에서 왔다고 업신여기고 수모가 말할 것도 없다.”

(출처 : 데일리 NK, 중국거주 탈북여성 인터뷰 中)

끊임없이 깔려다니고 또 깔려다니며 : 탈북여성 인신매매

한편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는 지속 되어왔다. 특히 최근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그중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를 3만명으로 잡아도 2만명 정도가 인신매매를 경험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는 '2008 인신매매 현황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중대한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는 최저등급인 '3등급(Tiers 3)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보통 아래와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일부 중국인들이 탈북여성을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면, 지금은 북한과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들간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북한에서 여성을 모아 넘기는 모집책,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받는 중간 판매책, 일정장소에서 북한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중국내 전문 인신매매 조직 등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에 넘어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탈북 여성들은 강제 구금과 협박(“공안에 넘기겠다” 등) 상태에 놓인다. 대부분 이 단계에 이르면 브로커들에게 강간이나 윤간 등 성폭력을 당한다. 거래자와 흥정이 이뤄지면 여성들은 대도시 혹은 내륙지방으로 이송된다. 나이, 미모 등 등급을 매겨 3,000위안(약 300\$)~1만 위안(약 1,000\$)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인신매매꾼이 엄마에게 데려다준다고 꼬여내서 중국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고 해도 어떻게 14살된 애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딸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중략) 중국 거간꾼을 추궁해서 딸이 있다는 조양까지 보내달라고 했다. 우선 심양에 가서 중간 소개인을 만나 딸을 찾기로 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인신매매꾼이더라. 나머지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놔주지 않았다.”

(출처 : 데일리 NK, 중국거주 탈북여성 인터뷰 中)

인신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

이렇게 팔려간 탈북여성들은 대부분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된다. 이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되팔려 다른 남성들과 계속 동거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동거에 따른 비인간적 결혼 생활과 남편의 성적 학대, 음주 폭력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망쳐 나오더라도 불안정한 신분탓에 탈북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결국 노래방·술집 등 유흥업소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성폭행은 물론이며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착취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내 탈북여성들을 이용해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 억류 게임’

美 여기자 납치는 북한의 기획공작

북한은 09년 3월 北·中 접경지역인 두만강변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2명의 美국적 女기자들을 납치했다. 지난 96년 북한이 미국인「에번 헨지커」를 억류한 후 미국에 특사 파견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對美협상 또는 체제 결속 필요시 미국인을 계획적으로 납치·억류해왔다. 따라서 對北 전문가들 간에는 이번 사건도 북한에 의해 기획 공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09.5)도 아래와 같이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 ▶ 북경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북한의 보위부 요원이 사전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안내한 조선족 가이드가 북한에 수시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도 밝혀냈다고 함
- ▶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바라는 북한은 美 기자의 구속을 ‘정치적 거래’를 위한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고한 외국인 인권까지 유린

사실 북한은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간첩 교육 등 필요에 따라 빈번히 납치를 자행해 왔다. 프랑스 유력신문「르 피가로」紙(08.4)에 따르면 북한은 70년대 들어 일본인 메구미 외에도 프랑스·이탈리아인 각 3명 등 총 28명의 외국인 여성을 납치했던 것으로 보도한바 있다. 더욱이 김정일 스스로 지난 2002년 日北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한바 있다.

북한은 80년대「아웅산 테러」KAL기 폭파 이후 20년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오다 작년말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무고한 민간인들을 버젓이 납치·억류하는 등 테러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북중 국경지대를 취재중이던 미 여기자 둘을 납치한 데 이어,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도 억류하고 있다. 이에 美 조야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해야한다는 논의마저 제기되고 있다.



日 '메구미 납치' 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납치 : 요코타 메구미 이야기」

당신의 고통이 얼마인지, 슬픔이 얼마인지, 눈물이 얼마인지, 아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인지, 하늘과 땅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아직도 믿을 수 없고;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불쑥 나타나 아들과 나를 찾을 것만 같아 당신의 목소리가 깃기에서 맴돌고 있는데 당신을 보이지 않아요.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후회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한 하늘 아래서 언젠면 우리의 소중한 기점을 다시 찾고, 내 사랑 하늘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지...

2004년 8월, 중국 국경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납치된 탈북한국인 진경숙씨의 남편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두 살난 아이의 엄마로서, 목숨걸고 탈북하여 이제 조금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던 사랑받는 아내로서,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삭풍이 몰아치는 만주별판을 헤매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복송되어, 한국행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차디찬 감옥안에서 온갖 고문에 시달려 두발은 만신창이가 된 채 산송장으로 버려졌던 한 여인이, 두발은 썩어 문드러져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겠다고 여인의 잘려진 두발과 절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사악한 반인도적 범죄자들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희대의 비극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종말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의 최후의 발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땅 북한에서 3만5천여개의 김일성동상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북한정권의 폭압으로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죽은 3백만 북한동포의 넋을 기리는 그날을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자유와 희망의 그날을 위해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드림